MK 꿈꾸는 나주 '주몽 콜택시'

〈일본 교토 택시〉

27명 법인·개인택시 공동브랜드

부당요금 척결 등 업계에 새 바람

'나주 주몽 콜택시를 아십니까'

택시 기사들이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 친절 서비스와 봉사 활동을 벌여 지역 택시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주인공은 나주 '주몽 콜택시' 회원들. 주몽 콜택시는 지난해 나주 관내 27명의 법인 및 개인택시 기사들이 모여 만든 공동 브랜드. 나주 삼한지 테마파크에서 촬영됐던 인기 드라마 주몽에서 브랜드 이름을 따 왔으며 일본 교토의 MK택시를 모델로 삼고 있다.

나주지역 택시가 270대인 점을 감안하면 주몽 콜택시는 전체의 10%에 불과하지만 회원들끼리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고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는 물론 각종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몽 콜택시는 다른 택시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율적으로 마련한 규정을 적용, 가차없이 해당 회원을 탈퇴시킨다.

특히 지역민들에게 보답하는 자세를 갖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몽 콜택시 회원들은 매달 2만원의 회비를 모아 분기별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선행을 베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10여명의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행사〈사진〉를 개최했으며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30여명의 노인들을 초청, 음식 제공과 함께 자신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주몽세트장을 비롯해 왕인박사 유적지 등을 둘러보는 효도 관광도 실시했다.

주몽 콜택시 위선호(63·나주시 죽림동) 회장은 "나주에 올바른 택시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결성 목적"이라며 "전체 회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승객을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함평 '나비 도우미' 인기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장에서 각종 안내 및 행사 진행을 담당하는 '나비 도우미'들이 어린이들로 부터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나비 도우미 50명은 45일간 행사장 곳곳에서 관람객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영암군 예산 '3천억 시대'

군의회에 제출

영암군이 예산 '3천억원 시대'를 열었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2008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천223억9천243만원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

민선 4기 첫해인 2006년 예산액인 1천921억6천994만원보다 무려 1천302억2천249만원이 증가한 액수다.

이는 각 부서에 중앙부처 예산서를 비치해 예산확보가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참여, 공공시설 유치 등 예산 확보에 주력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 사업은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 33억1천120만원 ▲소도읍 육성 32억5천만원 ▲군 관리계획 및 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23억9천20만원 ▲망향미술관 건립 13억 325만원 ▲환경기초시설 조성 12억 8천736만원 ▲대불산단 시설정비 11억7천50만원 등이다.

또 10억1천600만원을 들여 5일시장 현대화사업이 추진되며 구림 관광명소화사업과 바둑테마 공원조성에도 각각 10억670만원과 10억원이 투입된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성과

교육·임대·서비스 '삼박자' 갖춰

바쁜 영농철 농가 일손 돕기 호평

나주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농기계 임대사업이 바쁜 영농철 농가일손을 더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나주시의 농기계임대사업은 사전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기계작동 교육을 실시하고 고장난 농기계의 수리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교육-임대-서비스 '삼박자'를 갖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승용이앙기와 목재파쇄기, 농용굴삭기 등 21종, 57대를 구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농가에 빌려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농용굴삭기는 한대당 1천900만원, 승용이앙기는 1천400만원의 고가여서 농민들의 예약이 몰리는 등 임대 사업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주시는 사업 효과를 높이고 조작미숙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 농기계 작동법에 대한 현장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승용이앙기 임대농가 40명을 대상으로 취급 및 작동방법 등에 관한 현장교육을 실시했고 심토파쇄기, 농용굴삭기 등에 대한 5차례의 교육도 마련됐다.

또 지난 3월부터 2개반 6명으로 농기계 수리반을 편성해 42개 마을에 대한 순회수리를 마쳤다.

순회수리반은 오는 11월 말까지 20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2천원 이하 소모성 부품은 무상 지원하고 있다.

홍길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민들의 수요를 파악해 임대 기종을 늘리는 한편 현장교육과 순회수리를 통한 서비스의 체계적 관리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곡성 섬진강 천문대 운영 시간 연장

곡성 섬진강천문대〈사진〉의 운영시간이 연장된다.

곡성군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섬진강천문대의 운영시간을 5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늘린다.

오후 2시인 개관시간은 매월 둘째와 넷째주 토·일요일에 한해 오전 11시로 3시간 앞당겼다. 또 토요일 폐관시간은 밤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늦춰진다.

곡성군은 또 5월 한달동안 섬진강천문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천체사진 브로마이드 1매씩을 증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섬진강천문대는 토성의 띠나 목성 줄무늬까지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600㎜ 반사망원경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지금까지 1만2천명이 다녀갔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완도군, 공직기강 확립 특별 교육

완도군(군수 김종식)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강사로 나선 정완배 기획예산실장은 공직자로서의 자세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기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변화하고 노력하는 공무원 ▲헌신과 솔선수범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는 공무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것을 당부했다.

정 실장은 특히 "공직자들이 인식과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부패 척결에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라며 '공직자 행동강령'준수를 강조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담양 대나무 축제 120만 '대박'

대나무 활용 이색 체험·공연 관광객에 인기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담양대나무축제가 10일간 관광객 120만명 방문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12일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대나무축제는 개막일인 지난 3일부터 어린이날인 5일까지만 50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일찌감치 대박을 예고했으며 축제현장인 관방제림 주변은 연일 넘치는 관광객과 차량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9일 폐막식이후에도 연휴인 12일까지 인기 전시관과 체험 프로그램을 연장 운영해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대마무축제의 이같은 성공 배경에는 죽검베기대회, 대나무휘호대회, 대숲음악회와 대소쿠리 어부체험, 대나무 뗏목타기 등 대나무의 고장인 담양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이색 체험 프로그램의 영향이 컸다.

또 1천100여점의 대나무 예술품을 선보인 한국대나무박람회장과 친환경 농산물 재배과정의 현장 학습장이자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느림보마을'을 형상화 한 친환경농업전시관 운영 등 풍부한 볼거리 제공도 관광객 유치에 기여했다.

이밖에 행사장을 죽녹원과 관방제림 일대로 연계해 관광객들의 동선을 최소화 했고 행사장 주변 교통정리와 주차관리에 나선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등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축제 성공에 한 몫했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